

북촌우물가

Andong Presbyterian Church News Letter

2005년 11월호

통권 제 153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동교회
ANDONG PRESBYTERIAN CHURCH

10월 교우소식

새 교우

♣ **김정은**씨(87년생), 종로구 평창동 ☎ 010-3505-7496
김정은씨는 재미교포로서 이번에 로터리클럽에서 추천을 받아 대일외고에 교환학생으로 왔다. 운상구장로의 인도로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으며, 내년까지 1년 동안 한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 돌아가 대학에 들어갈 예정이다. 청년부에 소속되어 같이 활동하고 있으며 아동부에서 보조교사로 봉사를 하면서 교회와 한국사회에 적응할 예정이다.



♣ **이하영**씨(65년생), 양천구 신정동 양천아파트 103-613 ☎ 010-9387-0704. 이하영씨는 하나교회의 강철민 목사가 우리교회를 소개하여 오게 되었다.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으며, 중국에서 체류하는 동안에도 연길교회를 다녔다. 한국에서는 하나교회를 출석하다가 조용하고, 전통이 있는 교회를 찾다가 하나교회 목사님의 추천으로 안동교회를 찾아오게 되었다. 신정동에 살기 때문에 교회와 거리가 멀지만, 좋은 교회를 만난 것에 감사하며 지내고 있다. 교구장과 함께 새가족부에서 등록심방을 하여 교제를 나누었다. 6교구 13구

역에 속하며 교구장은 이순옥집사이다.



♣ **고현창**씨(70년생), 노원구 하계동 삼익아파트 1-103 ☎ 010-4477-5022. 고현창씨는 에덴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교회에 오게 되었다. 에덴교회에서 박병욱목사님과 이미 친분을 갖고 있었고, 목사님 사임이후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다가 다시 안동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다. 부모님이나 가족 모두가 불교를 신봉하고 있고 혼자 교회에 나오고 있어서 교우들의 더욱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 등록한 후 대부분의 공예배에 참석하는 등 교회생활에 열심을 보이고 있다. (주)블루박스에 근무하고 있으며, 교회에서는 한마음선교회에 소속하고 있다.



♣ **곽규성**씨(70년생)·**조현정**(76년생), **곽현성**(73년

생), 분당구 정자동 파크뷰A 602-604 ☎ 031-783-4430. 고 광문섭집사의 아들 광규성, 광현성씨와, 며느리인 조현정씨는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교회에 등록을 하였다. 광규성씨의 아들인 태운이와 태훈이도 각각 아동부와 유치부에 등록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 광규성씨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조현정씨는 청량리의 성바오로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고, 광현성씨는 청주 성모병원에서 산부인과 레지던트로 근무중이다.

♣ 정두심씨(54년생), 종로구 가회동 ☎ 741-5795. 정두심씨는 이웃에 사는 최서섭집사의 인도로 교회에 등록하였다. 전에 교회에 다닌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오랫동안 냉담기를 지내고 있다. 아직 기독교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인도하셔서 교회에 첫 발을 디디게 되었다. 직업으로는 개인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만간 아들과 함께 교회에 나오기를 희망하고 있다.

♣ 신기섭씨(49년생) 서대문구 홍은동 265-247. ☎ 396-3591. 신기섭씨는 김형선 집사의 남편으로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나오게 되었다. 김형선집사는 혼자서 교회에 다녔으나 이제 남편이 결심을 하고 함께 교회생활을 하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전에 계동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문창아권사 등 많은 교우들이 신기섭씨를 알고 있고 이번에 새로이 교회에 등록하게 되어 모두가 반가운 인사를 나누며 더욱 사랑하는 한가족이 된 것을 환영하며 기뻐하였다.



♣ 이옥선씨(76년생), 장학귀씨(76년생) 은평구 대조동 195-2 ☎ 017-356-8488 신혼부부인 이들은 고모가 되는 이경복집사의 인도로 교회에 오게 되었다.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과 더불어 교회를 통해 신앙의 삶을 살고자 등록하게 되었다.



별 세

☞ 나상용 집사 부친인 **고 나계현** 성도는 9월 28일 68세로 별세하였다. 빈소는 고인이 출석하던 도봉동성당에 차려져 주임신부가 장례를 집례하였다. 발인은 9월 30일 오전 10시에 장례미사를 드리고 곧바로 포천에 있는 천주교 남골당에 모셨다. 나상용집사는 고인의 3남 1녀의 유족 중 차남이다.

☞ 오기근 집사의 부군인 **고 광문섭** 집사는 63세를 일기로 투병중 5일(수) 별세하였다. 발인은 8일 오전 8시에 여의도 성모병원 병원장으로 치러졌다. 박병욱목사가 집례하였고 한소망찬양대가 찬양을 하였다. 고인의 형제는 우리 교회 광순영권사, 광원섭집사, 광운섭집사, 미국에사는 자매와 광홍섭집사이며, 유족은 부인인 오기근집사와 아들 규성, 현성씨이다.

결 혼

♣윤민우 군(윤종복씨 안영미 교우 1남)과 **김은주** 양(김남철씨 장남진씨 2녀), 8일(토) 오후 1시30분, 예배당.

♣이석준 집사(이 본 장로·송숙연 권사 1남), 29일(토) 오후 2시, 예배당.

유아세례

☞ **오나령** 양(오운환 임석정 교우 1녀)

☞ **신아람** 양(신진욱 백경원 교우 1녀)

출 산

☞ **김재진** 교우(김윤석교우 부인, 김영석장로 최문수집사 1녀), 28일(금) 득남.

환 자

- ♣ 김순초 교우(김화자 집사 모친)
- ♣ 문영임 권사, 분당서울대병원 81병동 6호.

감 사

- ★윤상구 장로, 독거노인을 위해 배 5상자 기증.
- ★박종한·신선자 집사 2일(주일) 전교우 점심대접.
- ★이효종 장로, 『생명의 샘』 3호(5천권)와 지하철전도지(6만장) 후원.
- ★이경복 집사, 독거노인을 위해서 잡곡 25kg 기증.
- ★장은라 권사, 지하 친교실에 가을풍경 현수막 2점 기증.

축 하

♣전시회- 삼청동에서 가구 전시 카페인 Tos를 운영하고 있는 **한정현** 교우,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에 남여화장대 작품 출품(18일부터 3주간).

이 사

- ♣민남홍·이서희 교우, 용인시 신봉동 삼성쉐르빌 1차 102-302 ☎ 031-265-9856
- ♣구희숙 목사, 가회동 132 ☎ 765-6997
- ♣이성철 목사, 가회동 132
- ♣최창해 목사, 가회동 132

추수감사주일

9일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켰다. 박병욱목사는 이날 골로새서 3:12-17의 본문 설교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완성하는 것은 감사라고 선포하였다. 준비한 추수감사절 헌금을 모두 강대앞에 나와서 드렸고, 성찬식을 거행했다. 예배 후에는 문화선교국에서 준비한 민속놀이를 윤상구 장로덕정원에서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예쁘게 포장된 곡식을 선물로 받고 놀이를 통해 교우들이 한마당에서 어우러지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몇몇 교우들은 친교봉사국에서 준비한 떡을 교회주변의 100가정을 찾아가 떡바구니를 돌리면서 풍성한 감사를 나누었다. (민속놀이 사진은 교회 홈페이지 □계시판□→□사진계시판2□에 올려져 있다.)

정책당회

2005년도를 평가하고, 2006년도를 준비하는 정책당회가 2일(주일)~3일(월)까지 흥천 대명비발디파크에서 진행되었다. 정책당회에서는 내년도 교회의 정책을 세우는데 진지하고도 열정적으로 회의에 임했다. 박병욱목사 이효종 이 본 조기현 윤상구 이정숙 이주영 추영일 강명준 장문자 임중규 김영석 김용원 박정음장로, 최창해 이성철 구희숙 목사 등 17명이 참석하였다. 먼저 박병욱목사의 인도로 이효종장로가 기도드린 후 말씀을 들으며 개회예배를 드렸다.

이어서 목회계획을 발표하였는데 ‘민족교회’, ‘개혁교회’, ‘세계일치교회’로서 안동교회의 교회상을 정립하기로 했다. 또한 박병욱 담임목사는 1) 당신이 안동교회를 나와야 할 3가지 이유, 2) 안동교회의 자랑스런 교회상, 3) 신앙성장의 핵심 4단계, 4) 안동교회 성도의 다짐, 5) 안동교인들 생활상 등을 정리하여 설명하였다. 향후 5년간의 목표와 표어를 정했는데 “선교에 힘쓰는 교회”이다.

2006년은 선교교육의 해로서 “우리가 이 일에 주인이로다” (행2:32/3:15)이다.

2006년도 주요 정책 결정 사항은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예배, CCM으로 드리는 제3부예배 신설, 전도팀 구성, 구역중심의 교회로 개편 등이다.

안동의밤

22일(토) 오후 5시에 중고등부에서는 연극제 축제로서 <안동의 밤> 행사를 가졌다. 먼저 5시에 기존의 1부예배를 형식을 달리하여 청소년들과 성인들이 함께 드렸다. 안동의 밤에서는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라는 워십과, “누가 나를 위해 가서”라는 스킷 드라마, “날위해”, “예수 나의 첫사랑되 시네”를 수화찬양으로 하였다. 중고등부 소개 영상이 있었고, “바벨탑”을 풍트로 했고, CCD로 “Joyful, Joyful”, “성령이 불타는 교회”와 성극은 “나는 네가 꺾박하는 예수라” 등을 하였다. 180여 명이 참석하여 어느해 보다도 많은 사람이 왔고, 잘 구성된 프로그램과 학생들의 재능과 열정에 교우들은 감동을 받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행사 후 만찬을 나누면서 초대받은 친구들과 교우들이 즐거운 축제를 마무리 지었다.

총 지도는 이 준선생이 맡았고, 아동부나 유치부

의 교사들도 협력하여 도와주었고, 또 중고등부 교사들이 한마음으로 교회근처의 학교에 초대장을 나누어주는 학교 앞 전도를 하였다.

한편 이번에는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었는데, 연습하는 기간에 직접 돈을 모아서 손수 학생들과 교사들의 식사를 준비해주었다. 한빛 여전도회에서도 10만원을 찬조해 주었고, 참여한 학부모들은 김연숙집사, 김영실집사, 김옥실집사, 박병욱목사, 민경임사모, 이광태, 강정녀교우, 장미리집사, 한계명권사 등이 학부모로서 각각 5만원, 10만원씩 찬조해 주었다.

사회봉사국 헌신예배

이번달 오후예배는 16일에 사회봉사국에서 헌신예배로 드렸다. 장신대 선교신학 교수인 김영동교수는 마태복음 25:31-46의 본문 말씀을 “믿음은 행동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선포해주었다.

늘푸른교실 가을 나들이

19일 늘푸른교실에서는 수안보로 가을 나들이를 다녀왔다. 본교회 성경공부반이 함께 참여하여 총 94명이 그림같은 수안보 파크호텔내 성봉채플에서 예배를 드렸다. 예배 후 비빔밥으로 점심식사를 하고 파크호텔에서 온천욕을 한 후 송계계곡을 따라 드라이브를 하며 서울로 돌아왔다. 성경공부반에서 찬조를 하고, 신선자집사 3만원, 조정귀권사 박카스100병, 박정음장로가 떡 2말을 해주셔서 올해도 풍성한 가을 나들이를 은혜가운데 다녀왔다.

제 169회 서울노회

제169회 서울노회가 무학교회에서 20일(목)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금)까지 개최되었다. 장로총대로서 이효종, 조기현, 이주영, 박정음장로가 참석하였고, 담임목사를 비롯한 부목사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여전도회 특강

여전도회에서는 23일(주일) 오후 2시에 예배당에서 전재욱 교수를 모시고 특강을 들었다. 전재욱 교수는 전 이대교수이며 다락방전도협회 사무총장을 지내셨고 파키스탄 선교사로 선교활동을 하시며 이번 특강을 통해 우리 교회에 많은 신앙적 도움을 주었다.

한메남선교회 장애인 선교

한메남선교회는 지난 16일 주일오후에 천애재활원을 방문하여 봉사를 하고 왔다. 정신지체 장애인 14명과 지체장애인 35명이 거주하고 있는 이곳에 선교회원들은 이성철목사와 함께 찬양과 기도를 하고 주방봉사를 하였다. 몇일 먹을 간식과 스탠드형 에어컨 1대를 기증하고 돌아오는 선교회원들의 마음속에는 사랑의 나눔과 헌신의 기쁨과 은혜가 넘쳤다. 장애인선교를 처음으로 하였지만 비교적 일반인들이 많이 찾지 않는 재활원을 가게 되어 그곳 사람들이 매우 좋아하고 더욱 반가워하여서 작은 힘이나마 큰 사랑으로 나눌 수 있어서 매년 정기적인 행사로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함께 한 사람들은 이정섭장로, 박영석집사, 김동형집사, 김윤성집사, 오정섭집사, 서우석집사, 조성행집사, 민만홍집사이다.



재난구호 헌금

23일(주일) 예배시에는 파키스탄 동북부지역 지진으로 인한 재난구호 헌금을 했다. 온 교우들은 지구촌의 재난당한 자들의 고통에 사랑으로 동참하고 기도하면서 헌금을 했다. 총 1,724,950원이 헌금으로 모아져 총회사회부로 전달하였다.

10월담임목사동정

10.4(화) 서울장신대 채플에서 설교

10.19(수) 한국농선회 조찬기도회에서 설교

총회·연합회·교계 소식

종교개혁기념 학술대회·총장 초청 특강



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김중은)는 종교개혁 제4백88주년을 맞아 장로교인으로서의 신앙 정체성 확립과 장신인으로서의 사명을 확인한다는 의미를 담아 제3회 종교개혁기념 학술강좌와 총장 초청 광나루 특강을 연이어 개최했다. 학술대회 모습.

지난달 27일 장신대 세계교회협력센터에서 마련된 종교개혁기념 학술강좌는 '개혁교회의 영성'을 주제로 열려 16세기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츠빙글리, 칼뱅이 어떻게 종교개혁 발발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종교개혁이 당시 사회 전반에 미쳤던 파급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강좌의 첫번째 발제를 맡은 임희국교수(장신대)는 '종교개혁자 츠빙글리의 경건'제하의 발표를 통해 "취리히에서 불타오른 종교개혁의 불씨는 예배 개혁으로부터 시작돼 교회갱신과 사회변혁을 주도해나갔다"고 설명하면서 "한국교회는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교회개혁과 신학교육을 근간으로 촉발된 츠빙글리의 종교개혁 정신을 적절히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칼뱅의 경건으로서 영성'을 주제로 발제한 최윤배교수(장신대)는 "칼뱅의 경건 개념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 이웃과 피조세계를 향한 사랑과 정의의 봉사"라는 두 가지 축을 형성한다는 견해를 피력하며 "교회와 세상에 대한 사랑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경건의 실천에 최선을 기울였던 칼뱅의 정신이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원종천교수(아세아연합신학대)는 '영

국 청교도 영성발전 과정의 역사적 조망'을 주제로 한 자신의 연구를 소개하면서 "청교도들이 견지했던 윤리적 영성 애정적 영성 사회참여적 영성을 한국교회가 본 받을 것"을 주장했다.

한편 같은 날 오후 소양 주기철기념관에서는 총장 초청 광나루특강 첫 번째 시간이 마련돼, '장신대의 역사와 전통'을 주제로 한 동교 김중은 총장의 강연이 이어졌다. 김 총장은 칼뱅의 개혁정신을 이어 받은 장신대의 역사와 전통, 신학적 방향에 대해 학생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으며, "종교개혁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를 갖고 있는 장신인들은 '신앙이 종교로 전략'해버린 과거의 역사를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늘 깨어있는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제90회기 총회 정책협의회

제90회기 총회 정책협의회가 오는 11월 7일과 8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다.

총회장 안영로목사(광주서남교회 시무)를 비롯한 총회 임원과 사무총장, 각 상임부 위원회 임원, 정책 관련위원회, 총회 실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게 될 이번 협의회에서는 총회 정책에 대한 소개와 함께 각 부서별 현안에 대한 발표에 이어 종합토의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총회 기획국장 김경인목사의 진행으로 열릴 총회 주요 정책에 대한 소개 시간은 총회 사무총장 조성기목사의 발표에 이어, 총회 기구개혁의 방향과 향후 과제에 대해 서기 김동엽목사(목민교회)가, '생명살리기운동10년 및 총회창립1백주년기념 사업 진행과정에 대해 동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총회장 이광선목사(신일교회)가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조성기 사무총장이 진행할 부서별 발표 및 토의시간에는 △재정부(박대창 부장) △국내선교부(곽동선 부장) △세계선교부(손승원 부장) △교육자원부(신용호 부장) △사회봉사부(정해동 부장)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박광식 위원장) △총회훈련원 운영위원회(김경곤 위원장) △미자립교회자립화 및 생활비지원대책위원회(이광선 위원장)의 현안들이 소개되고 토의가 진행된다.

총회의 전반적인 조직 구성이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열리게 되는 이번 정책협의회는 새롭게 총

회를 이끌어 갈 주요 관계 부서 책임자들이 총회 실무자들과 함께 갖게 모임을 갖고 정책적 현안과 과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는 자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총회 기구 개혁 이후 이에 대한 평가 과제를 남겨두고 있고, 금년 첫 시행 이후 진통 속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미자립교회 교역자생활비 평준화 사업 등에 대해 제90회 총회의 결의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개선의 과제를 안고 있는 총회로서 주요 정책 관계자들이 함께 하는 이번 모임의 결과에 따라 향후 총회의 진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또한 대부흥운동 1백주년 의미뿐 아니라 생명살리기운동 10년과 교단 창립 1백주년을 향한 장기적 과제 설정과 목표에 대한 중간점검 성격을 갖게 되는 2007년을 불과 1년 여 앞두고 다양한 의미와 중요성을 담아낼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지 또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발달 장애인 위한 교회교육 '걸음마' 단계



현재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교회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본 교단의 경우 전국적으로 34개의 교회가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교회학교를 별도로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7천5백 교회가 가입돼 있는 교단의 규모와 견주어 봤을 때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적은 수치다. 결국 발달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데 반해 교회학교에서는 상당수의 발달 장애인들이 전문적인 교회교육으로부터 소외되고 있으며,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버리는 실정이며 이

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교재 집필 책임을 맡았던 교육자원부 김명옥목사는 “발달 장애인들도 분명 선교의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교회가 이들에 대한 관심을 조금씩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면서, “당장 대대적인 지원이나 부서설치가 어렵다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라도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교회교육을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교회현장에서 발달 장애인들에 대한 무관심은 현실이다. 발달 장애인 부서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서울의 한 교회 관계자는 “우리교회의 장애인 부서의 경우에는 비교적 안정된 편에 속하지만 여전히 교인들의 관심에서는 떨어져 있는 분위기”라면서, “교인들이 우리 부서의 학생들을 여전히 ‘손님’으로만 여기고 멀리서 바라보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시선들이 있다”며 아쉬워했다.

물론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 초에 본 교단 사회봉사부 산하 발달장애인복지선교연합회(회장:문연상)는 제1회 발달장애인부 교사대학을 개최하며 발달 장애인에 대한 교단의 지원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 증진과 선교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당시 교사대학에는 전국에서 교회학교 교사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문연상목사는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교회교육을 구체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같은 교사대학을 실시했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교사훈련을 확대해 전 교단적으로 발달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총회 사회선교 정책문서집 출간

지난 1984년 본 교단 제69회 총회에서 채택한 ‘총회 사회선교지침’ 일부 내용이다. 사회봉사에 대한 책임을 다해왔던 본 교단은 지난 1979년 사회부를 신설하고 대사회문제와 재난구호 등 사회 각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응대해왔으며 사회선교에 대한 입장을 구체화시키고 산하 노회와 교회가 이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 현안에 대한 정책문서들을 만들어왔

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회선교 관련 정책문서들이 지난 90회 총회 직전 한 권의 책으로 묶였다.

'총회 사회선교 정책문서집-신앙·교회·사회'제하의 이 책에는 1984년 제69회 총회가 채택한 본교단 사회선교지침을 비롯해 '경계위기 극복을 위한 교회의 신앙각서'(1998.9.25 제83회 총회 채택),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장애인현장'(2001.9.20 제86회 총회 채택)등 총 9개의 지침서와 2000년 한국장로교대회 정책문서가 담겨있다.

본서 발간 실무를 담당했던 전 사회봉사부 총무 류태선목사는 "본 교단의 대사회봉사 활동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관심의 폭을 확장해 사회선교라는 개념으로 정리하면서 공식문서화 된 것이 지난 1984년 총회에서 채택한 총회 사회선교지침"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책에 실린 정책문서들은 한국교회가 걸어온 역사적·사회적 현실 등을 반영해 본교단 사회선교의 지표로 작성된만큼 총회 산하 노회와 교회들의 대사회적인 활동의 지침서로 사용되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임 교단장 총무 "협력하자" 다짐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최성규)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백도웅)는 공동으로 지난 17일 여의도 CCMM빌딩에서 2005년 신임 교단장·단체장 및 총무 취임축하 예식을 갖고 한국 교회 안에서 함께 협력하고 교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한기총 공동회장 박준순목사(충신교회)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예배에서는 한기총 최성규 대표회장과 교회협 신경하 회장이 환영사를 한 데 이어 한기총 직전회장 길자연목사(왕성교회)가 '말씀이 있

는 곳에 창조가 있다'를 주제로 설교했으며 문화관광부 정동채장관이 참석해 축사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신임 교단장·단체장·총무를 위해 △한국 교회 부흥과 세계선교를 위해 각각 특별기도를 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논의 지속

연구결과와 채택여부를 둘러싸고 한국교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주기도, 사도신경 재번역안이 지난 제90회 총회에서 부결로 결론 내려진 뒤, 총회 미진안건을 다뤘던 90회기 첫 임원회에서 임원회 자문기구로 주기도, 사도신경재번역위원회(가칭)를 두기로 함에 따라 관련 논의가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주기도, 사도신경을 새로 번역하자는 발의가 이뤄진 것은 지난 2002년 제87회 총회. 당시 총회에서는 현행 주기도와 사도신경에 오역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수정해 바르게 번역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본 교단은 신학, 국문학 등 각 분야별 전문위원을 선정해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새로 번역된 주기도 사도신경 최종안을 88회 총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88회 총회 석상에서도 상이한 입장을 보이는 총대들의 발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교회라는 신앙공동체가 1백여 년이 넘게 고수해오던 예전 양식인만큼 본 교단이 독자적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통일된 교리와 신조를 공유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채택은 보류하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교회협) 두 기관이 각각 주기도, 사도신경번역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연구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번 90회 총회 석상에서 다시 교리 개정 절차에 따라 표결에 부쳐졌으나 출석 3분의 2의 동의를 얻지 못해 결국 부결됐고, 3년 동안의 연구와 재번역을 위한 노고가 허사가 됐다. 이에 더해 교단이 중대한 정책이나 입장에 대해 일관된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고 '조변석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이렇게 수차례의 논의와 연구가 이뤄져 온 주기도, 사도신경에 대한 교단 안팎의 견해가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임원회의 결정은 다시 한번 주

기도, 사도신경에 대한 쟁점을 한국교회의 이슈로 부각시키는 것은 물론 본 교단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타 교단의 동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본 교단 北 평양에 교회 기공



본교단에서 추진중인 평양봉수교회 신축을 위한 기공예배가 한 달여 가량 일정이 지연된 가운데 오는 11일 평양봉수교회 신축현장에서 드러질 예정이다.

이번 신축기공예배에는 총회장 안영로목사(광주서남교회)를 비롯해 서기 김동엽목사(목민교회)와 회계 강상용장로(상신교회), 평신도지도위원장 손달익목사(서문교회), 남북한선교통일위원장 박광식장로(신림중앙교회), 본보 편집국장 김훈장로(광성교회), 남선교회전국연합회(회장:홍희천) 임원 등 총 14명이 공식 초청을 받아 참석하게 된다.

3박4일간의 일정으로 방북하게 될 본교단 인사들은 오는 9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중국 심양을 거쳐 평양으로 들어가게 되며 현지에서 신축기공예배에 참석한 뒤, 오는 12일 중국을 거쳐 귀국할 예정이다.

특히 본교단 산하 남선교회전국연합회가 창립 8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양봉수교회 신축공사는 지난 8월 동 연합회 회장 홍희천장로(창동염광교회) 및 남북한선교협력위원장 김용덕장로(금호중앙교회)와 조선그리스도연맹 중앙위원회(위원장:강영섭)간의 합의에 따라 이뤄졌다.

한편 총 40억원 규모로 신축될 평양봉수교회는 연건평 6백평에 지상 2층(중3층) 규모의 석조건물과 연건평 6백평에 지상 2층 규모의 선교교육관으로 건축된다.

한국출생 아동 및 미성년 이주아동 합법체류보장 영주권 허용 촉구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소장:박찬용)를 비롯한 전국 1백여개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 10월 3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한국출생 아동 및 미성년 이주 아동 합법체류보장 영주권 허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현재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결혼을 해 자녀를 낳고 있지만 부양하는 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사회적인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이별을 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고향에 보내진 아동들은 부모와 생활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심각한 정서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참가자들은 "부모가 불법 체류 신분으로 인해 체포될 경우 어쩔수 없이 혼자 남겨지는 아동들이 생기고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국제아동협약에 근거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고 이주가정아동정책 중 하나로 이주가정 아동에게는 영주권을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를 낭독한 후 참가자들은 △한국에서 출생한 아동들에게 불법체류의 굴레를 씌우지 말고 영주권을 허용할 것 △이들이 안심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미성년 이주 아동에게 영주권 허용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총회·연합회·교계 소식]은 한국기독교공보(<http://www.kidokongbo.com/>)를 참고하였습니다.

북존우물기

2005년 11월호 · 통권 제153호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인종교회

발행인: 박 병 옥

편집인: (교회소식) 구희숙

(교계소식) 이성철

발행일: 2005년 11월 6일